

은 무살의 페미니즘

-여고괴담-

우 8대 이화여성위원장 우

은 무살의 페미니즘

-여고괴담-

우 8대 이화여성위원회 우

목 차

들어가며	03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by 또랑	04
J에게 by 누에	07
선생님께 by 호수	11
고교시절 이야기 by 호수	13
도플이도는 이야기 by 유키	15
선생님들의 말.말.말 by 또랑	19
메멘토 모리 (MEMENTO MORI) by 자니	22
학교 안의 성적소수자 by NAMELESS	24
나가며	29
편집후기	30

들어가며

스무살의 여름. 우리의 스무살은 벌써 절반이 지나갔다. '대학'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여성위원회를, 그리고 페미니즘을 만나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란 걸까? 그 동안 배운 것도 많지만, 배울 것이 더 많은 우리들이다. 이런 스무살의 우리들이 모여서 '스무살의 페미니즘'을 낸다.

우리의 페미니즘은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지극히 소소하고 개인적인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 이 일상적인 경험들이 모여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회에서 그어놓은 19살과 20살의 경계가 너무나도 컸기에 나는 그 사이에서 방황했다. 치열한 입시경쟁, 엄격하다 못해 말도 안 되는 교칙, 은근슬쩍 만지던 느끼한 변태 선생... 19살의 나는 고등학교를 '대학만 가면...'이라는 생각으로 꼭 참고 견뎌왔다. 그러나 그 때의 소원대로 대학에 온 20살의 나는 그 때의 기억을 그냥 물어버렸다. 나 역시 사회가 그러했듯이 경계의 선을 그어버린 것이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단순히 묻어두어서도 안 되는 기억. 우리는 '스무살의 페미니즘'에 이런 고등학교 시절의 목소리를 힘들게 꼬집어내기로 하였다. - '고등학생/여성'이었던 우리들의 괴로운 이야기.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 또랑

내게 과외를 받는, 기껏해야 한 살밖에 차이나지 않는 고3 녀석이 수업 중 대뜸 불면 소리를 한다.

"대학간 언니들은 그래도 고등학교 때가 좋았다고, 다시 그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그건 행복에 겨운 소리인걸요. 그것도 다 소위 이름 있다는 대학에 갔으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순간 나는 너무 미안해졌다. 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으니까. 추억이란, 그렇게 나와 동떨어져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먼 나라의 얘기가 됐을 때에서야 비로소 그리워지는 그 무언가인가 보다.

나의 여고 시절...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새벽 1시에야 집에 들어오던, 그래서 늘 피곤하던 하루하루. 우리는 똑같은 초록색 교복을 입고, 똑같은 책상에 앉아서 똑같은 공부를 했다. 짜여진 시간표대로 수업을 받고,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다시 동네 독서실에 가서 공부 또 공부. 이게 나의, 그리고 우리의 정해진 똑같은 일상이었다. (물론 제대로 지킨 날보다 지키지 않은 날이 더 많았지만...-_-;;)

다행히도 이렇게 꼭 짜여진, 그래서 숨쉬기조차 힘들던 일상 속에는 잠시나마 숨을 쉬기 위한 작은 일탈들이 존재했다. 그게 없었더라면 아마도 난 학교에서 견디지 못하고 나가떨어졌을지도 모른다.

내가 '여고 시절의 추억'하면 떠오르는 건 바로 그 일탈의 기억들이다. 교복 치마 아래에 체육복 바지를 끼입던 패션과, 뽕뚜껑을 머리핀 삼아 흘러내리는 앞머리를 고정시켰던 일. 등교시간에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버린 바람에 지각을 간신히 모면한 적도 있었고, 학교 현관 앞에서 선

도부 때문에 못 들어오던 친구들에게 명찰을 빌려준 적도 있고, 늦잠을 자서 학교 수돗가에서 머리를 감는 친구를 위해 망을 봐주기도 했다. 선생님 전용 엘리베이터를 몰래 타고 다니다가 걸려서 혼쭐난 경험도 있고, 점심시간이면 광합성을 해야한다는 핑계로 노천에 앉아 수다를 떨다가 종소리를 놓친 적도 있었다. 낙엽이 수북히 쌓인 학교 앞 돌담길에서는 모 음료수의 광고를 패러디하기도 했고, 철따라 학교에 열렸던 앵두와 살구와 감 서리를 한답시고 한바탕 난리를 치기도 했다. 지금은 이렇게 흐릿한 추억으로만 남아있지만 그 때에는 꽤나 가슴 떨리던 아슬아슬함이었는데...

당시의 먹을 것에 대한 집착이란 실로 어마어마했다. 쉬는 시간이면 원심력을 이용해 매점을 초고속으로 갔다오곤 했고, 점심시간 종이 울리면 급식 줄을 서기 위해 문 앞으로 우르르 뛰쳐나가야 했다. 학교 카페에서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앉은 채 팔빙수 그릇 하나에 일제히 달려들기도 했고, 동아리실에서 몰래 시켜먹곤 하던 짜장면도 맛있었다. 사실 배가 그리도 고팠다기보다는 뭔가를 먹고 있는 순간에는 불안한 미래를 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나 할까.

학교 도서관을 땡땡이 친 날에도 나와 친구들은 결국 학교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캠퍼스 이곳저곳을 배회하곤 했다. 동아리실에서 과자 몇 봉지로 나름의 파티를 벌이거나, 학교 카페에 앉아서 시시껄렁한 만화책을 뒤적이거나, 아니면 노천 잔디에 서로의 다리를 베고 누운 채 하늘의 별을 바라보거나. 물론 그러다가 때로는 감독선생님과 마주쳐서 다시 도서관으로 끌려 들어간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건만, 당시에는 대단한 즐거움이었다.

지금은 다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들. 그래서 그립고 소중한 것들. 어떤 이들은 아름다운 것으로만 기억하는 것들. 그러나 그 추억은 아름답다고만 하기에는 불완전하다. 그 일탈은 결코 일상을 이길 수 없었으니 말이다. 언제나 그렇게 구속되어 있었기에 순간의 그 자유가 상대적으로 너무도 소중한 탓이 아닐까. 그래서 그 때의 서글픔이 흐릿해진

지금에서야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나의 여고 시절은 분명 그리운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결코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추억이, 어떤 이들에게는 현실이니.



1971년

누에

1971년

언제나 물어 다니던 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해도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 하필이면 문명에 가라앉혀 두었던 오랜 그리움은 어느 날 갑자기 떠올라 잔잔했던 수면을 마구 뒤흔들며 놓기도 해. 스무살의 페미니즘 주제를 지난 학창시절로 잠으며 풀곤 네 생각이 났어. 등·하교 길에 만났던 아담, 느꼈던 배려선생, 친구들 간의 사소한 말다툼, 임시가 주는 압박감... 이러한 십대의 모든 시간들이 시나브로 흐릿해져 추억이 되어가는 지금, 그 앞에 함께했던 우리도 빛이 바랄까 두려워 펜을 들었어. 제이, 잘 외내니?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너와 나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 그리고 이젠 나의 친구들이 너를 모르고 너의 친구들은 나를 모르는 다른 상황 속에서 살고 있어. 널 만나러 갈 때면 종종 친구들이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묻고는 해. 그럴 때 설명하기가 정말 막막하단다. 우리가 거리에서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을 우리의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본대도 그들은 알 수 없겠지. 그들에게도 단팻치구가, 제일로, 소중한 우정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듯 그들도 우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 우리 사이의 믿음, 우정, 사랑, 상처, 그리고 우리가 겪어온 많은 시간들을, 감이 있어 행복했지만 이따금 울었던 그 세월을.

너를 처음 알게 되었던 줄 그때 우리가 나눴던 쪽지들과 오랜 시간 써왔던 편지들, 교환일기 같은 것들을 아직 간직하고 있어. 이번 시간 끝나고 매점 가자는 이야기, 리쿠한 수업에 대한 불만, 재미있는 농담, 시시껄렁한 짧은 글, 그리고 제목을 알 수 없는 노래 가사파리 - 버리키 못하겠더라. 딱풀이었던 때에는 수업시간에 몰래 책상 한 가운데 소설책을 펼쳐놓고는 서로의 머리를 맞대 채 읽고는 했지. 쉬는 시간 종이 올리면 읽었던 구절들을 회상하며 즐겁게 떠들어대고. 줄때 이후로 한 번도 같은 반이 되지 못했어도 계속 친했던 우리는 수업이 끝나면 다치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일인 양 분식집 아니면 너의 집으로 갔어. 3층집의 복대개 층에 있던 현창이 낮은 너의 방은 넓지 않아 아늑하고, 땀에 있는 학교의 남학생들이 왁자지껄 떠들어대는 소리와 종소리가 들리고 겨울이면 따뜻했어. 참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배정반표 나던 날, 우리가 같은 학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층의 너희 반에서 뛰어내려온 너와 부딪혔던 하이파이프의 유쾌함이 아직도 내 손바닥에 느껴지는 것만 같아.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은 생각만큼 썩 즐겁진 않았지. 너에게 나 말고도 근사한 친구들이 여럿 생겨나고 그들을 질투했던 때도 있었어. 나의 이기심, 너의 무관심, 많은 모해 속에서 뻔해가는 서로의 모습들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며 과거의 자리에만 머무르고 싶어 했던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멀어져가고 큰 싸움도 없었는데 매일 몇 주를 서로를 모른 척하며 지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잖아. 하지만 그러다라도 우연한 기회에 한자리에 가까이 있게 되어 한 번 꼭 껴안아주고 서로 토닥토닥해주면 우리는 아무 일 없었던 듯 예전처럼 돌아가기도 했어. 다른 친구들은 뻔덕스러운 우리의 우정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늘 난감해했고. 어쩌면 우리, 어색해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재밌어서 그랬는지도 몰라

(웃음).

봄이면 꽃이 많고 나무도 많고 뒷마당이며 운동장 풍경이 예뻐던 고등학교. 맛없는 저녁급식을 먹고 나서 우리는 늘 교정을 한바퀴 돌고 운동장 스탠드로 가 앉아서, 어스름해진 저녁 풍경에 가슴이 저릿저릿해질 무렵이면 그 슬픔을 저만치 밀어내기 위해 작은 목지거리를 내뱉거나 재밌지 않은 농담에도 일부러 깔깔 웃었어. 그러다 종이 올리면 우리 아무런 말없이 서로의 고실로 돌아가잖아.

아자가 너무 지루해 평행이도 많이 쳤잖아. 학교 앞 편의점에 가 삼각김밥이나 컵라면도 사먹고 길가에 서서 어묵국물을 호호 불어가며 떡볶이도 사먹고. 배가 고프지 않거나 돈이 없을 때면 그냥 옥상으로 가는 계단이나 서클실로 향했어. 옥상계단까지는 선생님들이 감독을 돌리잖아 마음 놓고 수다를 떨었지만 사실은 몇 번 걸리기도 했지. 줄고 지저분했던 서클실이 숨어서 놀기엔 가장 좋았던 것 같아. 여름의 무로한 오후 라수에 갇혀서 못하던 우리는 교실에서 빠져나와 서클 실에 누워 낮잠도 많이 잤지. 아무 약속 없이 강 서클 실에서 서로를 만나게 될 때의 기쁨, 등을 대고 누우면 많은 담요 한 장 사이로 느껴지던 온기로 바닥의 차갑고 축축한 기운, 잠들 때까지의 뒤척임과 깨어나 서로의 부은 눈을 보며 지었던 웃음…… 커튼을 활짝-하고 열었을 때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처럼, 어두운 시간 가운데서 가끔씩 그런 이미지와 느낌들이 한꺼번에 가슴 안으로 파고들 때가 있어. 그 할나의 아찔함으로부터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환상을 본 것 같기도 하고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아주 슬퍼져.

제이, 하지만 내 모든 슬픔이 너의 탓은 아닌 걸. 그냥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잊혀지는 것들에 작별을 고해야 하잖아. 그래도 나, 그 언젠가 너의 일상을 같이할 수 없음을 아쉬워하던 나에게 어차피 느닷없이 불려도 달

래 나갈 건데 슬퍼하지 말라고 말했던 널 기억하며 언제나 위안을 얻을 수 있어. 내 걱정은 마. 남친이 친구가 생겼다고 해서 친구들에게 소홀하고 심리 없다고 말하던 너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걸. 지금 당장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 외리 어쩌고저쩌고하며 몸 잡는 남자들의 우정도 우정이겠지만, 내가 너의 바로 옆자리가 아닌 주변에서 서성거리다가 등 뒤로 밀려나게 될지라도 진실으로 널 축복할 수 있는 우리의 그것도 우정이라고 생각할게. 무엇보다 난 널 믿고 우리의 미래에 온 믿고 너의 행복을 바라니까, 말이야.

내가 막 페미니즘에 눈뜨고 있었을 때 넌 종종 못마땅한 표정을 지곤 했지. 하지만 그런 내가 나중 페미니스트로 정체화 하기까지의 과정에 가장 큰 힘이 되었다는 걸, 지금도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페미니즘이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아. 내게 정말 중요한 건 너와 그리고 또 많은 친구들을 좋아했던 진심을 잊지 않는 거야. 그 감수성이 내겐 가장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케이, 며칠 뒤 이 편지가 실린 스무살의 페미니즘 자로질을 건너며 내 앞에 선 내가, 예전의 소극적이고 쉽게 상처받고 어렸던 내가 아닌, 날 긍정하고 사랑하고 활발한 모습이랄지라도 놀라지 않아줘. 너에게 익숙한 내 모습이 아닐지라도 내 심장만큼은 언제나 여기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걸 알아줘.

아, 정말 긴 글이었어. 밤이 깊었고 넌 아마도 자고 있겠지? 행복한 꿈을 꾸고 있길 바래.

그럼 안녕

- 새벽, 누에로부터

선생님께

- 호수

선생님께

문득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날도 더워지는데 잘 지내는지 궁금해요. 선생님은 그와 외에도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죠. 지금의 전공을 생각하게 된 것도 선생님의 영향이 컸던 것 아니요? 그것 말고도 선생님 덕분에 정말 많은 것들을 새로 생각하고 알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억나세요? 선생님은 매일 아침 날파와 함께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그날의 특별한 의미를 칠판에 적어두곤 하셨지요. 덕분에 매일 매일이 특별하다는 것을 새삼 알 수 있었어요. 아침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칠판에 무언가를 적고 있는 선생님 모습이 보고 싶어서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학교에 가기도 했죠. 아침잠이 그렇게나 많은 제가 말이에요. 선생님이 늘 써두시던 매일의 의미 중에는 크리스마스나 할로윈이나 추수감사절처럼 누구나 특별하게 생각하는 날도 있었지만 바다의 날같이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날들도 많았죠. 그 중에 여성의 날이나 여성주간은 특별트를 하거나 밑줄을 그어 좀더 특별하게 하셨던 것을 보며 여성의 날이라는 것을 처음 알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 또 하나가 기억이 나네요. 선생님이 처음 저희와 만났던 날 선생님은 저희에게 굳이 결혼하셨는지 안하셨는지를 밝히지 않으셨죠. 그리고 선생님이 선생님의 어머니 성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왜 그러셨는지 알 수 없었어요. 게다가 선생님은 그

런 것을 전혀 설명해주시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게 마련이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을 이상하다거나 특이하다고 할 때 전 그게 좋아보였어요. 제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했던 것들을 선생님을 만난 후에는 살짝 뒤집어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생각해보면 어딘가 자연스럽지 못한 것들이 많았죠.

선생님, 저는 아직도 살짝 안개가 낀 유난히도 기분 좋게 고요한 아침이면 선생님이 혼자 조용히 학교침판에 무엇가를 적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는 듯해요. 하지만 다시 학교에 간다 해도 그 때처럼 그실 밖에서 선생님을 훑쳐보거나 할 수는 없겠죠. 저도 떠나고 선생님도 떠난 지금, 그때 그 학교는 이제 제 기억 속에만 있는 걸 테니까요. 선생님도 가끔 그 아침들이 기억나시는 지 궁금하네요.

고교시절 이야기

- 호수

고교시절 이야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업기 선생님들이다. 내가 겪은 그 많은 선생님들 중에 절대로 잊지 못하는 한 남선생님이 있다. 그 선생님은(이하 Y선생님) 모든 여고생을 다 자신의 딸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소중한 딸들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려는 의지에 불타는 그런 선생님이었다.

하루는 이 Y선생님이 수업도중에 언제나처럼 여고생들은 교복 및 용모 관련 교칙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는 것에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시면서 몇 일전에 겪었던 자신의 무용담을 들려주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의 시작은 Y선생님이 어느 때처럼 딸들의 교복을 검사하며 복도를 돌다가 어떤 한 학생과 시선이 마주치면서 시작되었다. 그 학생은 Y선생님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 학생이 귀고리를 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Y선생님, 끝까지 쫓아가서 학생을 잡았다. 학생은 남자친구가 해외로 유학가며 선물한 거라며 한사코 귀고리를 내어놓지 않으려 했고, Y선생님은 화가 난 나머지 그 귀고리를 뺏어 4층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 여기까지 말하고 우리를 향해 자랑스럽게 씨익 웃는 그 얼굴이 아직도 기억난다. 그 얼굴을 보며 다 질려했던 우리 반 학생들의 표정과 함께.

하지만 그 정도는 Y선생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Y선생님, 어느 날 드디어 하고싶던 말을 하고 말았으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진로문제에 대해 말하다가 나온 말인 듯 하다. 딸들의 궁극적 목표는 '시집'을 '잘가는'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던 이 선생님, 우리에게 여자들은 애를 많이 낳아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와 인력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

이라고, 따라서 빨리 결혼해서 될 수 있는대로 애를 많이 낳아야 한다고 한 것이다. 줄지에 아기제조기가 되어버린 우리는 너무나 황당한 나머지 아무말도 못하고 Y선생님을 쳐다보게 되었다.

하여튼 누구에게나 고등학교 시절에는 엽기 선생님을 하나쯤 만났을 테지만, 이 선생님만큼 황당하기도 힘들 것 같다. 하지만 이 선생님을 보며 말이 아예 안통하는 고집 센 아저씨로 생각하고 그냥 무시했던 나도, 이 이야기를 해 주었을때 아무렇지도 않아하는 내 남자 친구들을 보면 답답하다. 그래도 제대로 학교생활을 하지 않은 나에게 이런 황당한 일들은 "나에게도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지"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도플 이도는 이야기

- 유키

이상하게도, 나에게서는 중·고등학교 시절의 폭력적인 사건이 별로 없는 듯 하다. 지나간 일은 확실히 잊어버리는 속편한 나의 건망증도 한몫하였지만.. 아마 마초적인 언어를 듣고 행동을 보아도 크게 신경 쓰지 못했던— 이미 불평등한 사회에 익숙해져버린 나의 어리석고 불쌍한 의식 때문에 많이 지나쳤을 것이다.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가며 동창들의 정보를 수집했다. 오호~이런..

scene.1

중간고사 시험 보는 교실 안에서

K고사: 목걸이 배라. 시험날이라고 단속 안 할줄 알아?

P : 아 죄송합니다.. 뱉게요.

(목걸이를 배서 남방 애플머니에 넣는다.)

K고사: 어무~ 그러면 내가 못 뱉을 줄 알아?

(손을 남방 애플머니에 넣으려 한다.)

P : 왜 그러세요~~~

남방 애플머니란 가슴위에 달린 로그만 포켓을 말하는 것.. P의 거부로 못이기는 척 포기하는 K고사.

학교에선 변태로 소문이 나 있더군..

scene. 2

영어수업 중인 교사 안

(교사 : 내가, 너희들을 보면 우리 마누라도 저랬을까 겁이나.

학생들 : ?????

(교사 : 아니 "여학생" 고실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우리 마누라도
고등학교때 이랬을까 생각하면 정신이 떨어지지 주머니 빗자루
가지와서 앞에 좀 들어.

주머니학생들 :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와 쓴다.)

사실 나도 이때 있었다— 그때 무심결에 든 생각이, "여학생이라 깨끗
해야 되나? 난 그냥 먼지 쌓인 방에서 뒤굴며 살래.." 였다. 가끔 우리
엄마도 어지럽혀진 내 방을 보면 "여자애 방이.."라며 청소하길 닥달하
다. 여자는 깨끗해야한다고.. 난 게으르고 귀찮아서 깨끗이 청소 못하겠
데— 그럼 난 뭐야? ㅋㅋㅋ

scene. 3

국어수업 중인 교사 안

S교사 : XX! 너 만화책 보는 거지? 맨 앞에 앉아서...

XX : 아니에요— 안 봐요..

S교사 : 안보긴 뭘 안 보? 계속 밑에만 쳐다봤으면서.

XX : 진짜 안 봤어요, 만화책 없어요.

S교사 : 거짓말 하지 마— 보면 다 나와.

(말을 마치고 XX의 책상 앞으로 간다. 앞에서 그개를 숙이고 서랍 안을 본

다.. 음.. 설명하기 좀 애매하다만, XX는 책상에 앉아있는 상태고 S교사는
XX의 무릎위쪽으로 그개를 숙이고 서랍 안을 보는 모습..)

어찌 보면 별 것 아닌 거 같지만(?) 막상 생각해보면 매우 아찔한 포
즈.. 책상도 맨 앞이었는데, 그냥 살짝 돌아서 보면 되지 않았을까? 무슨
의도였는지.. 참..

몇개 적고 보니 어렵듯이 생각이 난다. "약수하자!"며 손을 잡고 손가
락으로 손바닥을 간질이던 교사.. 감기걸려서 아프다는 아이를 주무르던
(?) 교사— 제 따윈 안마라도 해줄려는 거였나 보다— 시험 잘봤더니
격려로 어깨를 다정스레 주물러줬던 교사와 일맥상통한다. 또.. 북하면 "못
생긴 년이—"를 내뿜던, 별명이 불타는 고구마였던 교사까지.. 음.. 더
이상은 기억이 잘 안나.. shit!

글 쓰다 보니 조금씩 화도 나는 걸?..

그때는.. 그래, 정말 "의식하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 내 마음 속
더 깊이엔 내가 뭘 어떻게 하겠냐는 무능과 체념이 있었지. 반향해보면
뭘가 달라지나? 선생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을 거고 나는 건방진 학생으
로 남을 뿐인데. 이런 일이 어디 한 두 번인가.. 다 그런거야..

논술을 쓰며 익숙해진 구조를 적용한다면 이쯤에선 해결방안이 나와야
해. 문제제기 사례소개 비판까지 나왔으니까—(북—; 어쨌든) 그리고는
글을 끝맺는 거지. 하지만 그렇게 이상적으로는 마무리가 안 될 거 같아.
해결방안이 있는 걸까. 있다면, 실현가능한 걸까. 우리의 교육현실은 아직
은 경직된 상하구조인데..

모르겠다. 단지 아름다운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는
게 가슴 아파...

WARNING



GIRL POWER

선생님들의 말.말.말

- 또랑

50 지리 선생님

"여자 팔자는 뒤등박 팔자."

"넌 예쁘니까 공부 안 해도 되겠네."

"넌 얼굴을 보아하니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는 금상첨화, 못생겼고 공부도 못하는 아이
는 설상가상."

"(수시를 쓰려고 면담하던 학생에게)넌 얼굴이 날카롭게 생기고 가슴이
작아서..."

"대학가면 돈 좀 보고 남자친구 구해"

"킹카랑 사귀면 발 못 빼게 저질러버려"

→ 우리 학교의 Best 변태 선생님. 별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추려내기 힘
들었다. -.-

10 국어 선생님

"오~ 글래머네."

"다리에 살 좀 붙었는데?"

"오늘 우리 마누라가 출장 가서 집도 비는데, 우리 집에 가서 비디로나
볼래? (다들 싫다고 하자) 그럼 이태원가서 헌팅이나 해야겠다."

"(한 학생이 배가 아파서 양호실에 가겠다고 하자) 생리통이니? 생리통
이면 생리통이라고 말해. (충분해서) 너희는 왜 그런 걸 솔직히 말하지
못하니? 여자들이 그러니까..."

→ 굉장히 개방적이고 친보적이며, '무지한' 학생들을 '계몽' 시키고 자하는 열의에 찬 선생님. 심지어 자기가 무슨 페미니스트인 줄 안다.~..

H모 그런 선생님

"(그런 수업시간에) 남자들은 콘돔을 끼기 싫어하니 여자들이 사용법을 익혀서 직접 끼워줘야 해요."

"콘돔은 언제나 갖고 다니다가 강간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콘돔을 꼭 끼워주세요."

→ 원래 싸이코닉 웬만한 말은 참했는데, 이건 정말...~..

H모 역사 선생님

"연애인 A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빵빵하더라."

"연애인 B는 엉덩이가 너무 매끈하지 않아?"

→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지루해하면 해주시던 드라마와 연애인 이야기. 그러나 차라리 수업을 하는 편이 나았다.~..

L모 사회 선생님

"(학교에서 간 캠프에서 술에 취해서는) A도 어서 시집가고, B도 시집가고, C도 시집가고.. D야, 너는 남아서 씨받이해라."

→ 내가 한때는 존경했던 선생님. 그러나 이 얘길 듣는 순간...~..

그들이 부당하다고 느낀 적은 많았으나,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하던 "네"라는 짧은 대답 뿐. 그러나 그건 순종이 아니라, 체념의 의미였다. 그 안에는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난 내 방식대로 살아갈 테니까...'라는 투의 냉소가 담겨져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있던 나 자신에 대한 일종의

죄책감이 섞여있기도 했다. 그래, 그 의미야 어쨌든 그것이 고작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표현의 전부였다.

내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돌아올 결과는 뻔했다. 그들은 "왜?"라고 물을 것이고, 나는 나름대로 그에 대해 설명하려고 발바둥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래서, 너 지금 나한테 탈대꾸하는 거냐?"라고 소리친다면 그걸로 상황 종료. 당연하지, 하늘같은 스승님이시니. 그리고 다음 수업시간부터 나는 소위 '적힌' 학생이 되는 것이다. 나는 결국 나만 손해 보게 될, 그런 무모한 게임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때로는 친구들과의 수다로라도 이 답답함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친구들이 내게 위로한답시고 던진 말은 다시 상처로 돌아왔다. 그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일 경우 애들은 "선생도 인간인데.", "술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말했고, 여자 선생님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태 결혼도 못했지.", "그러니까 남편한테 맞고 산다는 소문이 돌지."라는 반응을 보였으니까. 내가 원했던 말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나 혼자 화냈다가 혼자 식어야 할 바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화내지 않는 편이 현명했던 걸까. 당시의 나는 그럴 시간에 정석에 있는 수학 문제 하나라도 더 푸는 편이 나왔을 테니까. 나는 그렇게 학교에 적응하는 법을 서서히 익혀갔다. 그리고 그렇게 3년을 보낸 뒤, 다시 찾아간 학교. 그들은 나를 아무런 악의 없이 반갑게 맞이하고, 나도 웃으며 그들에게 인사를 한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의 꺼림칙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다. 나는 이제 막 벗어났지만 교실에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이기에...

메멘토 모리 (Memento Mori)

- 자니

아무 것도 다룰 것 없는 평범한 날이었다. 늘 그랬듯 매점을 들쭉거리고, 책상에 엎어져 꿈을 꾸고, 열 반에서 책을 빌려오고, 수업 중에 맞추어 자리에 앉고, 몇몇은 그제서야 화장실에 가겠다고 일어서는 그런 평범한 날이었다. 잠시 후 있을 선생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그저 하루 지나 잊어버릴 그런 오후였다.

분명히 기억하건데 지리 시간이었다. 불쾌함을 가득 담은 표정으로 씩씩거리며 들어와 들고 있던 커피잔을 교탁에 탁- 하고 내려놓던 사람은 지리 선생님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시작부터 히스테리적인 선생님을 나는 그저 별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까지는, 끝이어서 선생님은 자신이 왜 이리 황당하고 기분 나빠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도 그 선생님의 말투까지 생생하다.

"아니 세상에... 여러분. 지금 내가 얼마나 황당한 꼴을 보고 왔는지 알아요? 내가 교무실에서 여기로 걸어오는데, 4층에 왜 구름다리 지나서 복도 시작되는 곳 있잖아요? 거기 구석에서 세상에... (이 부분에서 선생님은 숨을 잠깐 들이쉬었다) 세상에 여자에 돌이 키스를 하고 있지 뭐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은 '히익-' '미쳤다 미쳤다' '웬일이냐' 등의 다양하지만 결국 뜻은 똑같은 반응을 내보이고 있었다. 우리의 동감을 얻어낸 선생님은 더욱 힘을 내어 그들을 향한 화살을 쏘아대었다. 별건 대낮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나가도 아랑곳 않고 그럴 수가 있느냐 라며.

사실 나는 지금도 흰한 거리에서 스किन업을 하는 연인들을 보면 흠칫 놀라곤 하는데, 그때 선생님은 얼마나 놀랐겠는가. 심분 이해한다. 만약

거기서 끝났더라면 나는 그저 선생님 편에 서서 그들을 비난하고 말았을 지도 모른다.

끝이어서, 선생님을 정말 불쾌하게 했던 이유가 뒤따라 나왔다. 핵심은 여자애들 들어왔다.

선생님은 예전의 자신의 경험을 곁들이며, 공학에서 간혹 키스하는 애들은 봤어도 여고 와서 그런 거 볼 줄은 몰랐다. 말문이 탁 막히더라 하며, 사실 그녀가 정말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장소가 아닌 성별임을 구체적으로 짚어내기 시작했다. 그 후 10여분 동안 우리는 선생님의 비난 섞인 설교를 들어야 했다.

선생님이 가지는 설득력이란 네모난 교실에 12시간 이상을 갇힌 채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만 달달 익혀오던 우리에게 결코 작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선생님은 자신의 위치와 교권이라는 힘을 이용해 그들의 감정을 조종했고, 거기에 대다수의 학생들은(어쩌면 나조차도) 동조함으로써 그들은 그렇게 나의 교실에서 짓밟히고, 폭력을 당했다. 우리에게 10분이었지만, 그들에겐 평생의 생체기일지도 모른다. 학교라는 공간의 질서와 성립조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당해야 했던 그들에게, 그리고 나와 다름에 대하여 폭언을 쏟아 붓던 우리에게, 과연 여고시절은 낭만 가득한 하늘색 추억으로만 남을 수 있을까.

학교 안의 성적소수자

- NAMELESS



2003년도 스무 살의 페미니즘 기조는 '여고괴담'- 기조는

저렇게 무시무시하지만 사실상 주제는 우리의 지나간 학창시절 이래요~ 학창시절, 지난 중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제일 그리워지는 사람은 아마도 친구들이 아닐까 해요. 한 명씩 한 명씩 떠올려 봐도 세세히 다 생각나는 그리운 친구들. 하지만 우리는 친구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한 채 졸업을 하고 친구와 헤어져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친구의 면보다 보지 못하는 면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보려고 하니까 말이에요.

우리의 수다스러움은 특히 이성교제로 인한 가슴앓이 앞에서 더욱 가공할만한 힘을 발휘했죠. 하지만 혹시, 모두가 좋아하는 남자친구로 인한 고민,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자랑, 헤어진 남자친구에 대한 그리움 등에 대해 재잘재잘 이야기할 때 그저 얼굴엔 씩씩한 미소만 띄우고 침묵하고 있었던 친구가 있지는 않았나요?

아, 또 이런 친구도 있었을지 몰라요. 머리는 짧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성성보다 남자 같은 면이 더 많고... 그 친구는 자기처럼 짧은 머리에 행동도 결렁결렁한 친구들과만 어울려 다니고는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친구를 매우 좋아하고 따랐지만 어떤 사람은 뒤에서 욕하고 수군거렸죠. 선생님들은 가끔씩 '너는 머리가 그 게 뭐냐?'라고 묻기도 하고 '그래서

시집은 가겠냐?'하고 비꼬기도 했죠.

당신은 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요? 당신은 그들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다녔나요?

당신이 레즈비언이라고 못 박았던 친구는 실제 레즈비언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호모포비아인 당신이 당신의 친한 친구에게 당신이 싫어하는 '호모'에 대해 재수 없다고 욕할 때 묵묵히 그 걸 듣고만 있었던 당신의 친구가 바로 그 '호모'이었을 수도 있지요. 만약 동성애에 대해 관심이 지극히 많은 당신이 '누구누구는 레즈비언이야~'하고 소문을 퍼트리고 다녔다면 당신은 아웃팅 가해자였던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죠. 비슷한 점이 많아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성격은 서로 상극이지만 절친한 친구가 되기도 해요. 우리의 친구들은 각각의 개성이 다르니 '내 친구들은 모두가 ~하다.' 라고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네요. 그렇게 많고 다양했던 친구들 중 과연 레즈비언이 단 한 명도 없었을까요? 어쩌면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당신이 레즈비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동성애자는 어디에나 존재하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의 지나간 학창시절 속에도 말이에요.

이 건 제 친구 k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겪었던 이야기예요.

그 k의 씨클 친구들은 야오이나 팬픽을 즐겨 읽었더라요. 그 친구들은 동성인 친구들끼리 커플을 자처하며 놀기도 하고 주변의 호모포비아들에 맞서 싸우기도 했죠. k는 자신의 친구들이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 긍정적인 것을 감사하고 다행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k의 마음속에는 점점 커밍아웃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서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씨클 후배들 앞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짜 커플 행세를 하며 놀고 있는 그들에게 한 후배가 물었어요. "언니들 혹시 '이반'이세요?"라고. 놀란 k가 머뭇거리고 있는데 친구들은 마구 화를 내기 시작했죠. '어떻게 우리보고 이반이라고 할 수 있느냐, 기분 나쁘다' - 대충 이러한 것이 그들이 불같이 분노한 이유예요. 그 자리에 있던 k는

어떻게 했나요? k는 후배의 질문도 질문이지만 화가 난 친구들의 모습과 그 이유에 더 상처받았다고 하네요.

혹시 당신도 고등학교 때 동성애 코드가 섞인 농담이나 장난을 즐겨했었나요? 요즘 당신은 주변에서 누군가가 동성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비웃음 반, 조롱 반으로 크게 웃고 있진 않나요? 아마도 요즘 세상에 동성애(자)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충분한 화제이고 웃음을 유도해 내기에 적당한 이야깃거리인가 봐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겐 단지 흥미에 불과한 동성애가 다른 한 사람에게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 번엔 제가 고3때 겪은 일이에요.

학교에 'a와 b가 사건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a나 b와 한 번도 같은 반이 되었던 적은 없었던 제가 친구들의 수군거림으로 둘의 얼굴까지 알게 되었으니 소문이 꽤나 크게 났던 모양이에요.

사건은 어느 날 저녁시간에 터졌죠. a에게 한 무리의 학생들이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것이예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워낙 의견이 분분해서 물리적 폭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매우 심한 언어폭력과 모욕이 가해졌던 것만은 분명해요. 나중에서야 그 걸 알게 된 b는, a에게는 잘못이 없으니 a에게 그러지 말라고 차라리 자신을 욕하라면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 와중에도 어떤 아이들은 언젠가는 이런 일이 터질 줄 알았다면서 느긋해 했고, 심지어 당해도 싸다며 울고 있는 a와 b에게 찾아가 손가락질까지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뒤에서 욕한 건 마찬가지이면서도 막상 그 사건이 터지자 몇몇 아이들은 정도가 너무 심했다고 말하더군요. 가끔 속상해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둘은 사귀는 게 아닌데 애들이 오해하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라면서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의 논리를 뒤집어 보면 동성인 두 사람이 사귀는 게 사실이라면 이런 식의 폭력이 발생해도 마땅하다는 얘기

잖아요. 전 a와 b가 이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와 상관없이 이 사건은 명백한 호모포비아들이 저지른 성폭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동안 교내를 술렁거리게 만들었던 이 사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아이들의 머리 속에서 잊혀져갔죠. 하지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a, b는 물론이고 교내의 많은 이반들은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을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끔찍해요. 아마 그들에게 이 사건은 평생 잊지 못할 폭력일 거예요.

학교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 성적소수자와 관련한 선생님 이야기를 떠올리려니 영 생각이 나지 않아요. 교과서 내에 동성애자가 실린 것을 본 적도-아, 우리 교과서에 불건전한 예로 나온 적이 있었나요?- 수업시간에 동성애에 대해 함께 토론한 경험도, 선생님께서 동성애에 관해 말씀해준 기억도 너무나 적군요.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것이 다루기 어려운 주제라던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수업시간에 이야기할 수 없다면 우리의 알권리는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죠. 동성애에 대해 발화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교육만 이루어졌어도 많은 청소년 이반들이 처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느끼는 죄책감이나 혼란, 자살(미수)에 이르는 것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아마 호모포비아도 훨씬 덜할 거예요.

여기까지 읽으며 당신은 줄곧 글쓴이가 누군지 궁금해 했겠죠. 하지만 어렵게도 이 글을 쓰고 있는 작자가 이름을 밝히길 거부하는군요. 실제의 성적채성과 상관없이 동성애에 대해 급진적 발언만 해도 동성애자로 낙인찍히기 십상인 현실에서 만약 글쓴이의 이름을 실으면 'xx는 레즈비언이야?'라는 질문이 쇄도할 것은 뻔한 일이잖아요. 아, 신문 제1면에 [몇 월 몇 시에 어디어디에서 사람들이 xx에게 'xx는 레즈비언이야?'라고 물었다]는 기사가 날 수도 있겠군요. 사람들에게 동성애자는, 그 진위여부를 따져야 하고 그 이름 그대로 신문에도 실려야 하고 모두의 구경거리를

가 되어야 하잖아요. 구경거리에서 그치면 차라리 낫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돌까지 던지니까요. 더럽고 말도 안 되고 단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동성애자는 에이즈 세균-HIV 바이러스를 말하는 것 같군요-딩 어리고 성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동성애는 돌 맞고 고쳐야 할 '병'이 되더라고요.

지난 시절엔 모두가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학습을 해야 하는 획일화된 중등교육,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실로 대학에 와서 선택할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다양해졌어요. 하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이성애를 해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네요. 동성애 인권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찾아보겠다고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은 그대로네요. 저의 나이는 떡국을 먹을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날 것이고 스무 살의 페미니즘도 스무 한 살, 스물 두 살의 페미니즘으로 알차게 여물어 가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동성애 인권은 한 살도 먹지 못했어요. 지금껏 태어나지조차 못하고 자궁 안에서 웅크리고만 있어요.

당신이 이 자료집을 읽으면서 떠올리고 있을 학창 시절, 그 기억 속에서 당신이 알았든 알지 못했든 가족, 친구, 선생님, 동료의 이름으로 분명 존재했을 많은 동성애자들이 언제쯤 그 흐릿한 기억의 영상으로부터 빠져나와 당신 앞에 당당하게 서서 커밍아웃을 할 날이 올런지... 아직 세상의 자궁 안에서 꿈쩍할 수 없는 그들이 가끔이나마 발로 배를 툭툭 차기만 해도 전 아주 기쁠 것 같아요.

나아가며



스무살의 페미니즘 기초를 '여고괴담'으로 잡고 중·고등학교의 경험을 이야기하기까지 우리는 고민이 많았다. 우리의 경험을 '여성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충분한 성찰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우리에게선 지난 학창시절에 겪었던 여성억압적인 경험이 너무나 많아 전부 다루게 되면 자료집이 어수선히질 것 같은 우려도 있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고민이 우리 스무 살 페미니즘의 모습이다. 슬퍼하고 분노할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설명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으로부터 오는 자괴감, 그러나 아직 포기하기는 일렀다.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는 결국 기억 속의 학창시절을 꺼내어 보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글들이 바로 그 결과물이다.

들어서며 말했듯, 우리의 페미니즘은 지극히 소소하고 개인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 작은 경험들로 인해 상처받는다. 우리는 상처의 아픔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쓸 것이다. 우리의 축수를 최대한 민감하게 세우고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적 편견과 모순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제 겨우 스무 살이 됐을 뿐인 우리는 사실,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무수한 차별과 억압 속에서 힘든 고개를 무려 열아홉 개나 훌쩍 넘겨온 셈이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더 많은 고개들을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넘어야만 한다. 지금도 또 하나의 고개를 열심히 넘고 있는 스무 살의 페미니즘에게 격려와 희망의 박수를 보내며 글을 마친다.

편집후기

유기! 여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스물
살의 페미니즘을 소개 해줬네요. 할수록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생각해보고 싶어요. 우리 여위들은 모두 좋은 사람일 거 같아
요^^^^ 할수록 소중한 인연 계속 됐으면 해요~그리고 우리랑
성취하 - 난 그대들에게 영원한 팬이에요.^^ 사랑해요♡ 하하...
아직은 반하기 족스럼지만.. I'm a feminist^^

자니 는 부족한 나를 감싸주는 넉넉한 여위 중기. 모두들 힘내
요!^^

호수 모두 감사하구요. 여위 사랑해요^^

도량 군은 '넌다'라기보다는 '자넌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
다. 그만큼 네게는 힘은 군크기였으니. 군 주는 데 도움은 선지.
황구, 달, 고리, 이숙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누에 발탁하고 마쁘다는 핑계로 발 한 미 함께 하지 못했는데도
이해해 주는 나외 소중한 동거녀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위들... 언제나 최선을 다 하는 그대들이 자랑스러
워요. 으흠으흠~



함께하는 사람들 : 개, 둥이, 반짝, 볼피드, 샬라, 토마

여성위원장님!



우 학생문화관 218호

☎ (02) 3277 - 4708

✉ ewhalovewom@hanmail.net

★표지에 실린 그림과 위의 그림은 만화가 박희정씨의 작품입니다★